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8년 7월 27일(금) (총 9쪽)	담당부서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담 당 자	최난주 팀장 (043-880-5421) 손재석 대리 (043-880-5424)

어린이 화상사고, 가정 내 주방에서 많이 발생해

- 전기밥솥, 정수기 등으로 인한 화상에 주의해야 -

옷차림이 간소화되는 여름철에는 신체 노출이 증가해 화상 우려가 더욱 높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여름철에 가장 많은 화상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는 호기심이 많은 반면 반응속도가 느려 빠른 대처가 어렵고 피부가 연약해 화상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 '16년 계절별 화상환자수(비율) : 봄 172,486명(23.2%), 여름 235,504명(31.6%), 가을 181,089명(24.3%), 겨울 155,309명(20.9%)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15년~'17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화상사고'는 총 2,636건**으로, 전연령 화상사고 건수(6,640건)의 3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837건 → '16년 976건 → '17년 823건

□ '1세~3세' 걸음마 시기에 빈발하고, 가정 내 '주방'에서 주로 발생

어린이 화상사고의 대부분(88.2%/2,325건)이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다. 세부 발달단계별로는 호기심과 활동범위가 증대되는 '1~3세 걸음마기'에 57.5% (1,515건)가 집중됐고, 이어 '0세 영아기' 19.6%(5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아'가 57.3%(1,510건)로 '여아' 42.7%(1,126건)보다 14.6%포인트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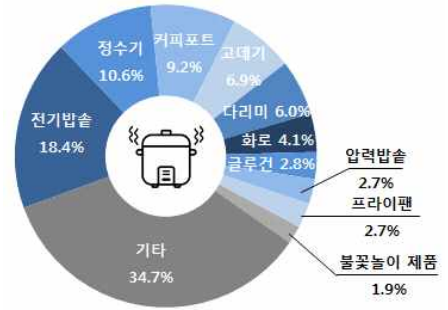
화상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영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가정'이 전체의 79.2%(2,08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정 내 화상사고의 절반 이상(57.8%/1,206건)은 전기나 가스를 사용한 가열 조리가 이루어지는 '주방'에서 발생했고, 이어 '침실·방' 16.4%(342건), 거실 10.5%(2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기밥솥, 정수기, 커피포트 등 전열제품 사용 주의해야**

어린이 화상원인은 뜨거운 제품과 접촉하거나 (49.1%/1,295건), 뜨거운 물이나 증기(46.7%/1,232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밖에 콘센트에 젓가락 등을 집어넣어 발생하는 전기 화상(3.3%/86건)과 빙초산·순간접착제 등으로 인한 화학 화상(0.8%/20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품목별 현황]



품목별로는 ‘전기밥솥’이 18.4%(4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수기’ 10.6%(279건), ‘커피포트’ 9.2%(242건), ‘고데기’ 6.9%(183건), ‘다리미’ 6.0%(157건)로 이상 5개 일상 생활제품이 전체의 절반 이상(51.1%)을 차지했다.

□ **화상 위험이 있는 제품은 반드시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해야**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화상사고는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흉터 생성으로 인한 관절 부위 운동제한이나 외모 스트레스에 따른 건전한 정신적 성장 저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가정이나 어린이 관련 시설 등 일상에서 어린이가 화상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전기밥솥 등 전열제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둘 것 ▲어린이를 씻길 때 수도꼭지나 샤워기는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물을 받아서 할 것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막아둘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화상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법으로 ▲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에 15~20분 정도 식힐 것 ▲부종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지 등 장신구는 제거할 것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물집은 터뜨리지 말 것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병원에 방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등 주요 안전취약계층 대상의 위해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붙임 >

1 어린이 화상사고 위해사례 분석

□ (현황) 전체 화상사고 중 어린이가 약 40% 차지

- 최근 3년간(2015~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화상사고'는 2,636건으로 전연령 화상사고의 39.7%를 차지함.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전연령 화상사고	2,160	2,479	2,001	6,640
어린이 화상사고	837	976	823	2,636
(비율)	(38.8)	(39.4)	(41.1)	(39.7)

□ (발달단계) 이동성 및 호기심 증대하는 '걸음마기'가 가장 많아

- 전체 어린이 화상사고의 88.2%(2,325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음. 세부 발달단계별로는 걷기 시작해 이동성이 확장되고 호기심이 많은 '1~3세 걸음마기'가 전체의 57.5%(1,515건)로 가장 많고, 이어 '0세 영아기' 19.6%(517건), '7~14세 학령기' 11.8%(311건) 순으로 나타남.

[성별 ·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 (%)]

구분	남아	여아	건수	비율	
영아기(0세)	305	212	517	19.6	
걸음마기(1~3세)	1세	603	393	996	37.8
	2세	184	133	317	12.0
	3세	103	99	202	7.7
	소계	890	625	1,515	57.5
유아기(4~6세)	4세	69	53	122	4.6
	5세	56	48	104	4.0
	6세	39	28	67	2.5
	소계	164	129	293	11.1
학령기(7~14세)	7세	26	27	53	2.0
	8세	16	27	43	1.6
	9세	36	21	57	2.1
	10세	16	20	36	1.4
	11세	14	23	37	1.4
	12세	18	18	36	1.4
	13세	15	11	26	1.0
	14세	10	13	23	0.9
소계	151	160	311	11.8	
합계	1,510 (57.3)	1,126 (42.7)	2,636	100.0	

□ (발생장소) 가정 내 '주방'에서 가장 빈발

- 어린이 화상사고 발생장소는 '가정'이 79.2%(2,087건)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교육시설 등 '가정 외 장소'가 20.8%(549건)로 나타남.
- 가정 내 세부장소로는 '주방'이 57.8%(1,206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침실·방' 16.4%(342건), '거실' 10.5%(220건) 등으로 나타남.

[발생장소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가정 (79.2%)	주방	1,206	57.8
	침실·방	342	16.4
	거실	220	10.5
	화장실	40	1.9
	기타·미상	279	13.4
	소계	2,087	100.0
가정 외 장소 (20.8%)	숙박시설·음식점	159	29.0
	교육시설	40	7.3
	도로, 인도	34	6.2
	기타	316	57.5
	소계	549	100.0
합계		2,636	100.0

□ (원인별) 뜨거운 제품 접촉, 열탕 및 증기로 인한 화상이 대부분 차지

- 어린이는 가열된 고데기나 다리미처럼 '뜨거운 제품과 접촉'(49.1%/1,295건) 하거나, 정수기나 전기밥솥 등의 '뜨거운 물(열탕) 및 증기'(46.7%/1,232건)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그밖에 콘센트에 젓가락을 집어넣어 감전되는 등의 '전기 화상'(3.3%/86건), 빙초산이나 염산 등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 화상'(0.8%/20건)도 꾸준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됨.

[화상원인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고온 접촉	1,295	49.1
열탕 및 증기	1,232	46.7
전기	86	3.3
화학물질	20	0.8
불명	3	0.1
합계	2,636	100.0

□ (품목별) '전기밥솥', '정수기', '커피포트' 등 순으로 많아

- 품목별로는 '전기밥솥'(18.4%), '정수기'(10.6%), '커피포트'(9.2%), '고데기'(6.9%), '다리미'(6.0%) 등의 순으로 이상 상위 5개 일상생활제품의 비중이 절반 이상(51.1%)을 차지함.

[원인품목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품목	건수	비율
1	전기밥솥	484	18.4
2	정수기	279	10.6
3	커피포트	242	9.2
4	고데기	183	6.9
5	다리미	157	6.0
6	화로(불판)	108	4.1
7	글루건	76	2.8
8	압력솥	70	2.7
	프라이팬	70	2.7
10	불꽃놀이 제품	51	1.9
	기타*	916	34.7
합계		2,636	100.0

* 국냄비, 가스레인지, 콘센트, 찜질팩 등

- 화상원인품목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특정품목에 집중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다양하게 분산됨.
 - '영아기'에서는 '전기밥솥'이 3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커피포트' 19.7%(102건)의 순으로 이상 2개 품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걸음마기'에서도 '전기밥솥'이 19.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수기' 14.9%, '다리미' 7.6% 등으로 나타남.
 - '유아기 및 '학령기'에서는 글루건이 가장 많았으며(각각 6.8%, 11.3%), 화로, 고데기 등 다양한 품목이 등장함.

[발달단계별 상위 5개 원인품목 현황]

[단위 : 건, (%)]

순위	영아기 (0세)	걸음마기 (1~3세)	유아기 (4~6세)	학령기 (7~14세)
1	전기밥솥 165 (31.9)	전기밥솥 296 (19.5)	글루건 20 (6.8)	글루건 35 (11.3)
2	커피포트 102 (19.7)	정수기 225 (14.9)	화로(불판) 19 (6.5)	고데기 20 (6.4)
3	고데기 43 (8.3)	다리미 115 (7.6)	다리미 17 (5.8)	커피포트 19 (6.1)
4	압력솥 21 (4.1)	커피포트 109 (7.2)	정수기 16 (5.5)	정수기 18 (5.8)
5	정수기 20 (3.9)	고데기 106 (7.0)	난로 15 (5.1)	불꽃놀이 제품 15 (4.8)

□ 주요 화상사고 사례

증기 화상	2017년 A(만 1세, 여아)는 주방에서 전기밥솥의 증기가 나오는 곳에 손바닥을 갖다 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음.
열탕 화상	2017년 B(만 1세, 남아)는 분유전용 커피포트의 줄을 당겨 뜨거운 물이 쏟아져 가슴에 2도 화상(수포 및 피부손상) 및 얼굴과 다리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음.
접촉 화상	2017년 C(만 1세, 남아)는 화장실에서 보호자가 사용한 고데기를 손으로 잡아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음.
전기 화상	2017년 D(만 2세, 남아)는 집에서 콘센트(220V)에 젓가락을 집어넣어 전기에 의해 양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음.
화학 화상	2016년 E(만 1세, 남아)는 집에서 잠기지 않은 빙초산 병을 흔들다가 빙초산이 팔에 튀어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음.

□ 주방

- 전기밥솥은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 전기포트는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용합니다.
- 아이가 닿는 곳에서 조리용 전열기구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곰국, 육개장 등 뜨거운 국이 담긴 냄비를 욕실이나 베란다 등의 바닥에 두고 식히지 않습니다.
- 프라이팬, 냄비 등의 조리기구는 사용 후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식힙니다.
- 이유식은 식힌 후 그릇에 담습니다.
- 아이를 업고 음식을 조리하지 않습니다.
- 아이를 안고 라면이나 커피 등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 거실 · 방

-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등을 사용 후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 다리미 사용 후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 러닝머신은 전기 코드를 빼 둡니다.

□ 화장실

- 욕조에서 목욕할 때 뜨거워진 수도꼭지 부분은 마른 수건으로 감싸둡니다.
- 세면대에서 아이를 씻기지 않습니다.
- 샤워기를 사용하여 아이를 씻기지 않습니다.

□ 공통

-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막아둡니다.
- 정수기는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합니다.
- 라이터나 성냥 등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 자문 : 문덕주 원장(베스티안 서울병원)

□ 뜨거운 물에 젖은 옷은 가위로 제거합니다.

- 접촉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부손상이 심해집니다. 옷은 벗기려 하지 않고 가위로 제거하는 것이 열과의 접촉 시간을 줄여 주어, 손상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흐르는 물로 화상부위를 충분히 식힙니다.

- 흐르는 물에 15~20분 정도 식혀야 합니다. 화상 부위가 넓은 경우에는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으므로 몸 전체를 담그지 말고, 흐르는 물을 고르게 뿌려 식힙니다.

□ 화상부위를 식힌 후 장신구(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는 제거합니다.

- 금속의 장신구는 열을 가지고 있어 화상을 깊어지게 합니다. 화상을 입고 나면 부종이 생기므로 조이는 장신구를 제거하지 않으면 혈액 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 소주, 치약, 연고 등은 화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습니다.

- 민간요법은 화상 상처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바가 없고 때로는 상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고를 바르면 병원에서 연고를 닦아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 전기에 의한 화상의 경우 플러그를 뽑거나 전류를 차단합니다.

- 전기와 접촉된 상태의 사람을 만지면 위험합니다.

□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화상부위를 감싼 후 병원에 방문합니다.

- 붕대는 너무 조이지 않게 감아야 합니다. 감긴 부분의 압박이 강한 경우에는 혈액 순환이 잘되지 않아 상처가 깊어질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드레싱으로 화상 상처에 감염이 생기거나, 화상이 깊어지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흉터를 더 많이 남기게 됩니다.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 화상부위는 얼음으로 식혀야 한다?(X)

- 차가운 얼음을 대면 화상부위를 진정시키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은 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상처 주변의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 순환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즉, 얼음을 직접 화상부위에 대면 피부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피부재생에 필요한 혈액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삼가야 합니다.

□ 물집은 일단 터뜨려야 한다?(X)

- 물집은 터뜨리지 않습니다. 자가로 제거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으며, 화상 상처를 악화시켜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집은 병원에서 감염 관리 하에 제거해야 합니다.

※ 자문 : 문덕주 원장(베스티안 서울병원)